

데스크 시국



홍행기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훌쩍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벌써 4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에 대한 결산의 시기도 눈앞에 닥친 셈이다. 촛불 혁명에 힘입어 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 대통령은 당시 취임사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권과 반칙 그리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는 특히 임기 중 정부의 모든 정책을 관통할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저 유명한 발언이 그것이다.

국정지지율 비록 떨어지고 있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손에 손에 촛불을 켜 들고 구름처럼 모여든 국민은 새 정부가 약속한 ‘평등·공정·정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환호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 세 단어로 이뤄진 시대정신’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발휘되었는지에 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라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대통령이나 정권이 제시한 ‘시대정신’의 발현 정도 또는 임기 중 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론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이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국민도 이 여론조사 평가 결과를 하나의 ‘추세’로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 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정 지지율이 잇따라 최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신력을 지닌 여러 뉴스 매체에 보도되고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구체적인 추세를 수립되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접어 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단 임기가 ‘10개월이나’ 남아 있지 않은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그의 책 ‘법철학 강요’(1820)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고 말했다. 헤겔은 또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을 ‘시대정신’(Zeitgeist)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 시대정신은 한 시대가 끝날 때에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혜로운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비유를 통해 한 시대나 한 정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시대 또는 그 정부가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한 평가 역시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정권 재창출의 핵심’ 역할은 역시 ‘민주정권의 마지막 보루’

인 호남에 숙명처럼 맡겨져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지난 3일과 4일, 그리고 6일과 7일 등 총 4일간 전국 18세 이상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광주·전라권에서는 긍정평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64.3%를 기록했다. 한때 지지율이 80%를 넘나들며 고공비행하던 시절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전국 평균 긍정평가 36%에 비해 갑절 가량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민주정권 재창출 포기할 수 없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57.2%를 기록, 전체 평균인 30.2%보다 27%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잇따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차갑게 식어 가는 화로라 하더라도 그 안의 회색빛 재 깊은 곳에는 별건 불씨가 남아 있는 것처럼, 정권의 심장부 호남에 민주정권의 맥을 이을 마지막 원동력이 숨어 있는 셈이다. ‘광주정신’과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민주 정권 재창출 여부는 앞으로 남은 10개월에 달려 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신임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여권 국회의원들과 대선 잠룡들이 맡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광주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려는 간절한 노력이 있어야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2022년 3월 9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은편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 대표

최근 6개월 동안 세계 교육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둘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오프라인으로 20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했는데 온라인과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에 참여했는지도 물어보고 교육 내용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과정은 이런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강사의 지식 전달에 치중됐었고 수강생끼리 수평적 교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기능이 소모임 토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집콕’하면서 편한 복장으로 들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커다란 장점입니다. 시간 절약, 에너지 절약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환경의 세렌디피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뜻밖의 만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의 우연한 발견, 즉 ‘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낯선 것들의 만남과 조합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점은 많은 연구자들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야 뜻밖의 만남이 자주 일어날텐데 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강사와 수강생의 수직적 교류가 위주이고 수강생들의 수평적 교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렌디피티를 통해서 이루어진 혁신의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플레밍의 페니실린, 노벨의 다이내마이트, 린트겐의 X선, 제너의 중두법, 3M의 포스트잇... 그 밖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을 하게 된 계기도 많습니다. 하워드 솔츠가 밀라노 출장에서 이탈리아 시카펠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의 스타벅스는 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미국 출장길에서 우연하게 인터넷을 접해 보고 중국에 인터넷망이 깔리기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결혼하게 된 계기도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발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빌 게이츠와 머린다. 머린다의 회고록에 의하면 머린다가 행사에 늦게 참석해서 민 좌석 두 개 중 하나에 앉

았는데 나중에 빌 게이츠가 남은 하나의 자리에 앉게 돼서 서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행사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세렌디피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세렌디피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우연한 소통을 늘리는 것, 셋째, 발견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신사육을 지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이 뜻밖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세렌디피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온라인이야말로 새로운 환경이고 우연한 소통이 빈번한 곳입니다. 구글의 ‘순간 검색’ 기능은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SNS는 세렌디피티와 댓글을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행하는 세렌디피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과정에서 세렌디피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닐로고 세대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닐로고 마인드를 가진 채로 형식만 온라인에서 구현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일까요?

기고

호남학과 인공지능(AI)

하고, 눈높이를 낮추어 일상 속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인 호남에 어떠한 명제들이 있을까? 양과 농경, 섬과 해양, 남도인의 심성, 마한과 백제, 왕과 장보고, 임진왜란과 의병, 민속, 실학, 시서화(詩書畵), 미향(味鄕), 구산선문(九山禪門), 금석문, 소리, 춤, 동학농민항쟁과 광주학살운동, 근대유산,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명제는 충분히 지역을 상징하는 것들로 무아라 해도 호남학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많고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낼까? 구성원들의 역량만으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현대적 수단인 인공지능(AI)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법에 도전해 볼 만하다. 마침 광주가 AI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도 갖추었다. AI는 주로 특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나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왓슨(Watson)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꼭 현대적인 첨단 분야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학과 호남학 진흥을 위하여 또 다른 현대적 수단인 AI를 적용해 볼 만하다. 경각부화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많은 전통 학문 분야에서도 이런 현대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현대적인 디지털 컴퓨터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내는 것이다. 우선 고문헌의 어려운 한문을 번역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비서

실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일기’를 고문헌 번역자가 하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 그러나 교육된 AI가 수행한다면 소오 시간과 에너지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뿐이겠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의 모든 일을 AI는 해낼 수 있다. 옛 그림에서 사라져 버린 부분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팔만대장경에서 채집된 글자체를 개발하고, 남도의 소리에서 모아진 자유의 소리(Ambient Music)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한(恨)의 정서와 유배 문화, 호남 인물,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문헌을 쉽게 정리해 사용할 수 있다. AI로 문헌을 인식하여 정리되고 검색되어 활용된다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흔적만 남아 있는 옛터를 가상현실인 VR로 재현하여 실감나게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

내년에는 기대수명 서거 4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퇴계 이항과 기대승이 교류하고 화답하는 장면과 내용들을 실감으로 구성하면 실제 두 분이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것이다. 5월 광주의 아픔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함께 3차원 영상 홀로그램으로 처리하면 더욱 실감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는 과업을 광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으니 참으로 의미가 크다. 이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최신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광주의 미래를 위하여 선택된 인공지능, 지속적인 투자와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져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양분을 먹고 튼실한 열매를 맺길 소망한다.

社說

5·18 묘지만 찾는다고 호남 민심 돌아설까

정치인들이 요즘 잇따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아, 또다시 ‘5월 그날’ 이다가오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실감하게 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마치 통과례처럼 어김없이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구애를 펼쳤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지도부와 함께 각각 한 시간 간격을 두고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차례로 참배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대권 잠룡이나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야당 초선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11명은 그제 광주로 내려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은 참배 직전 “전두환 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광주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

기도 했다.

묘비를 정성스레 닦는 초선 의원들의 모습이 담긴 보도사진을 보노라니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야당 초선 의원의 참배는 그동안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인데다, 이례적으로 보수 야당 의원의 입을 통해 전 씨의 사죄를 촉구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5·18묘지 참배를 놓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내년 대선을 앞둔 마당이니 지난 재보궐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호남을 포함한 지역적 외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해석이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만 보고 싶지는 않다. 다만 누차 강조한 바 그대로,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 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그 증거를 보여 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광주 군공항 이천 등 이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될 터이다.

오월 광주 알릴 외국인 전담 해설사 절실하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국립 5·18민주묘지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5·18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외국인 전담 해설사가 상시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18민주묘지 외국인 참배객은 2017년 7509명, 2018년 6634명, 2019년 8517명으로 해마다 7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1054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 참배객은 5·18 항쟁이나 사적지에 대한 해설조차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다.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가 광주관광재단에 요청할 경우에만 이력 능력을 갖춘 해설사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전담 해설사는 외국인 참배객들에게 묘지 시설을 두루 안내하며

항쟁의 의미와 열사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주말에만 배치되고 평일엔 예약을 해야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추모객이 늘고 있는 것은 민주·인권 도시라는 상징성과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과 슈가의 노래 등을 통해 알려진 5·18에 대한 관심 덕분에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군부 쿠데타로 무자비한 탄압이 빚어지고 있는 미얀마에 광주가 연대의 손을 내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오월 광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담 해설사의 상시 배치가 절실하다. 연중 운영이 어렵다면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상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한 외국인 전담 해설사도 서둘러 육성해야 할 것이다. 5·18의 세계화는 말로만 외칠 일이 아니다.

無等鼓

국민의힘이 ‘서진(西進) 정책’에 또 시동을 걸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났음에도 그가 추진해 왔던 ‘호남 끌어안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진 정책’은 한반도 동쪽인 영남의 정치 세력이 서쪽의 호남 정치 세력을 끌어안는다는 뜻으로 언론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립 5·18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및 지난해 3월 등 세 차례 광주를 방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과 함께 또다시 ‘서진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7일 원내 지도부와 함께 곧바로 광주와 전남을 찾아 지역 현안 등을 챙겼다. 초선의원들 역시 지난 11일 국립 5·18 묘지 참배와 함께 묘역 환경 정화 운동을 펼치는 등 진정성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 과거 초선 의원들이 극우 보수 세력에 기대어 5·18을 폄하하고

서진(西進) 정책

에곡해 온 것과는 많이 달랐던 모습이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부류 사과’를 한 최초의 보수 정당 대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쇼’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들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5·18 관련 특별법 개정’ ‘한전공대 특별법’ 등 지역 현안(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그러니 역시나 ‘쇼’였다는 지역민들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지금도 이들의 ‘서진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색안경을 쓰고 볼

때라진 모습이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에서 중도까지

노선 확장을 꾀하는 한편 ‘도로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에 정치적 전략이 아닌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진보 대 보수 또는 영남 대 호남의 갈등을 조정하며 누렸던 과거 보수 정당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과 화합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난다면 그때 비로소 지역민들도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